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분석과 정책제언

| 이윤진

CONTENS

1. 첫만남이용권 도입배경
2. 첫만남이용권 인지 시점 및 신청 현황
3. 첫만남이용권 이용실태
4. 2022년 만족도 조사결과와 비교
5.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참고문헌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분석과 정책제언¹⁾

이윤진 선임연구위원

SUMMARY

- 2022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자녀 대상으로 200만원 바우처 지급 정책으로 부모들에게 “기분 좋은 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럼에도 2022년 조사에 비해 만족도가 대체로 하락했는데 금액부족을 불만족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음. 자녀수 1명, 저소득가구, 외벌이가구, 학력이 낮은 가구에서 주로 금액에 대한 불만족이 높았음.
- 2024년부터 둘째 자녀이상부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으므로(2023년 0.72명, 2024년 1분기 0.6명대) 첫째 자녀부터 금액 상향 검토를 제안함. 여기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므로 가구소득을 고려해서 저소득 가구에 추가 지원을 하는 등 현행 보편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지원대상을 세분화하는 정책의 고도화를 제안함.
- 출생신고와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일부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출생신고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겠음.
- 인터넷 세대인 젊은 부모들인 만큼 신청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관련 앱을 개발, 보급하여 별도로 카드사에 신청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사용처, 잔액 등을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1) 본고는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본고의 인용글은 해당 연구에서 수행한 면담조사의 결과임. 아울러 본고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힘.

1 첫만남이용권 도입배경

가. 도입 배경 및 목적

▶ 도입배경

- 첫만남이용권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추진 전략에 정책과제로 포함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도입됨.

▶ 목적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생애초기 가정 내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함(보건복지부, 2024: 3).
 - 근거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제6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임(보건복지부, 2024: 3).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아 200만원, 둘째 아 이상은 300만원 지급(보건복지부, 2024: 4).
 - 다둥이의 경우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후부터는 300만원 지급(보건복지부, 2024: 5).

나. 신청절차

▶ 첫만남이용권 신청대상 및 지급방식

- 첫만남이용권 대상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임(보건복지부, 2024: 4).
 -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된 아동도 포함됨(보건복지부, 2024: 4).
-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인 바우처 형태가 원칙이며,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함(보건복지부, 2024: 5).

▶ 첫만남이용권 이용 범위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목적이므로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성인용품, 면제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함(보건복지부, 2024: 6).
 - 세금 및 공과금 납부에는 사용 못함(보건복지부, 202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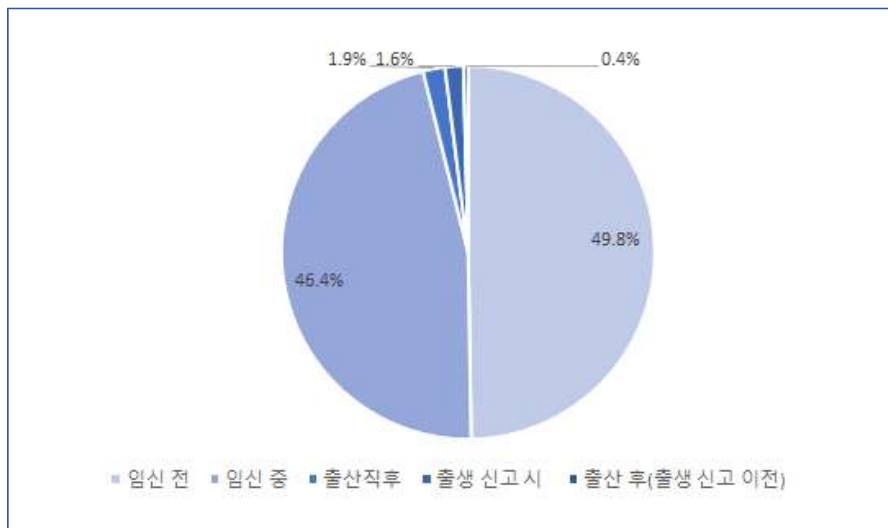
- 이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한 부모 대상으로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분석하여 동 사업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모색함.²⁾

2 첫만남이용권 인지 시점 및 신청 현황

▶ 첫만남이용권 인지 시점

- 대부분 출산 전인 임신 준비 시기(49.8%)와 임신 중(46.4%)에 첫만남이용권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그림 1] 첫만남이용권 인지 시점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30.

- 면담조사 참여자들도 임신 중에 임신, 출산 지원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다는 사례가 주를 이룸.

인터넷 검색하다가 임신했을 때 그 때 임신 출산 지원 신청하면서 그때 알았거든요. 아이 낳으면 첫만남 준다고....

임신 중이었어요.....전 그냥 핸드폰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유튜브였는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이 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2) 이하 내용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임. 설문조사는 2023년 첫만남이용권의 200만원 바우처를 전부 소진한 2,000명 대상으로 2023년 9월18일~9월25일동안 실시함.

면담조사는 FGI(집단심층면담조사)와 IDI(개별심층면담조사) 두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한 총 11명의 부모 대상으로 진행함.

저는 임신 중에 지자체 통해서 출산한 다음에 혜택 같은 거를 검색하다가 알게 됐어요..

첫만남이용권은 아이 갖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유튜브로 이것 저것 찾아 보니까 알았어요. 유튜브 검색해서 임신 한 4~5개월 그쯤에 알았던 것 같아요.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함. 설문조사 결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음(약 70%).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할 때, 첫만남이용권도 같이 신청함.

[표 1]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구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계(사례수)
전체	69.9	30.2	100.0(2,000)
권역			
서울/인천	59.3	40.7	100.0(408)
경기	68.9	31.1	100.0(605)
충청	79.3	20.7	100.0(232)
경북	70.1	29.9	100.0(194)
경남	76.6	23.4	100.0(273)
전라	70.4	29.6	100.0(179)
강원/제주	76.1	23.9	100.0(109)
$\chi^2(df)$		39.526(6)***	
자녀수			
1명	60.3	39.7	100.0(541)
2명	73.0	27.0	100.0(1106)
3명 이상	74.8	25.2	100.0(353)
$\chi^2(df)$		32.816(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72.9	27.1	100.0(524)
300만원~400만원미만	72.0	28.0	100.0(514)
400만원~500만원미만	70.5	29.5	100.0(380)
500만원~800만원미만	65.6	34.4	100.0(453)
800만원 이상	62.0	38.0	100.0(129)
$\chi^2(df)$		11.223(4)*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4	26.6	100.0(1039)
맞벌이	65.0	35.0	100.0(896)
무직	80.0	20.0	100.0(65)
$\chi^2(df)$		19.717(2)***	

구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계(사례수)
최종학력			
고졸이하	75.1	24.9	100.0(342)
전문대졸	73.3	26.7	100.0(525)
4년제졸	67.3	32.7	100.0(917)
대학원이상	63.9	36.1	100.0(216)
$\chi^2(df)$		14.09(3)**	

주: 2022년 수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만족도 조사 결과임.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34.

* $p < .05$. ** $p < .01$, *** $p < .001$.

▶ 첫만남이용권 신청자 및 주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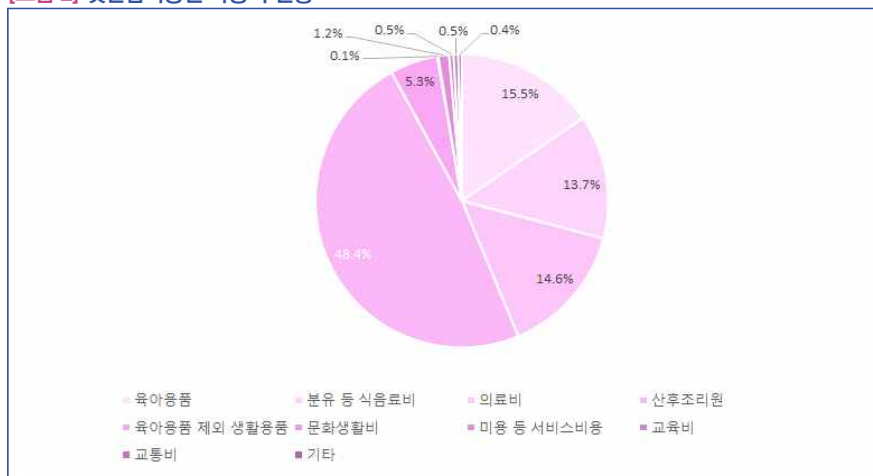
- 신청자는 자녀의 어머니(61.6%), 자녀의 아버지(38.4%), 자녀의조부모(0.1%) 순임.
- 주 사용자는 대부분이 자녀의 어머니이며(94.5%) 자녀의 아버지는 5.1%로 일부이며 조부모 및 다른 가족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0.1%).

3 첫만남이용권 이용실태

가.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 첫만남이용권의 주요 사용처는 산후조리원이 48.4%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육아용품(15.5%), 의료비(14.6%), 식·음료비(13.7%), 생활용품(5.3%)의 순임.
- 첫만남이용권은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 부적절한 일부 사용처만 제한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사용가능해서 사용처가 매우 다양함.

[그림 2]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현황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41.

▶ 주로 많이 사용한 산후조리원, 육아용품(옷, 기저귀, 장난감 등) 등 상위를 차지하는 항목들을 변인 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음. 이들 항목들은 2022년 조사에서도 동일한 순위로 나옴.

- 가장 많이 사용한 산후조리원은 수도권 거주자, 자녀수 1명,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정에서 주로 많이 이용함.
 - 2022년 조사에서도 산후조리원에 가장 많이 사용함.
- 자녀수가 많을수록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줄어든 반면, 육아용품과 식·음료비의 지출 비중은 자녀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권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산후조리원 이용비율이 절반을 상회한 반면, 경남, 전라, 강원/제주는 절반 이하로 사용하였고 대신, 육아용품, 식·음료비 사용비중이 높아서 지역에 따라 사용처가 다를 수 있음.
- 고소득가구일수록 산후조리원 사용 비율은 높은 반면, 식·음료비, 육아용품, 생활용품의 사용 비율은 낮았음.
 -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비용은 243.1만원(평균 이용기간 12.3일)으로 집계됨(이소영·최인선, 2021: 69, 47). 따라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전액을 사용하더라도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저소득가구에서 산후조리원 이용은 낮은 것으로 해석됨.

[표 2]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단위: %

구분	육아용품 (옷, 기저귀, 장난감 등)	식·음료비 (분유, 이유식, 식비 등)	의료비 (병원, 약국 등)	산후 조리원	생활용품 (육아용품 제외)
전체	15.5	13.7	14.6	48.4	5.3
연령					
20대	20.8	11.7	10.3	47.7	7.1
30대	15.1	13.5	14.4	49.0	5.3
40대	14.2	15.6	17.7	45.4	4.2
<i>F</i>	4.734**	1.990	4.107*	0.813	2.384
권역					
서울/인천	15.4	11.7	14.1	51.3	4.5
경기	14.0	12.1	12.4	54.6	4.5
충청	13.4	14.1	13.4	50.2	5.9
경북	13.1	13.4	15.9	49.0	6.3
경남	15.2	14.3	17.1	45.2	5.5
전라	21.1	17.5	20.9	31.4	5.9
강원/제주	23.7	21.1	11.3	33.8	7.7
<i>F</i>	4.702***	4.367***	3.015**	8.400***	1.349

구분	육아용품 (옷, 기저귀, 장난감 등)	식음료비 (분유, 이유식, 식비 등)	의료비 (병원, 약국 등)	산후 조리원	생활용품 (육아용품 제외)
자녀수					
1명	7.9	4.6	16.7	67.6	1.8
2명	17.6	15.5	13.9	43.6	6.2
3명 이상	20.4	21.8	13.2	34.0	7.6
<i>F</i>	38.767***	84.590***	2.444	75.624***	24.13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7.3	15.5	16.0	42.0	6.4
300만원~400만원 미만	15.0	15.2	13.5	48.6	5.4
400만원~500만원 미만	17.2	12.8	14.5	47.3	5.4
500만원~800만원 미만	14.5	12.5	13.2	53.1	4.2
800만원 이상	8.5	6.7	18.0	59.9	3.5
<i>F</i>	4.123**	5.576***	1.331	5.763***	2.114
맞벌이 여부					
외벌이	16.3	14.6	13.9	47.5	5.3
맞벌이	14.2	12.5	15.1	50.4	5.1
무직	20.0	15.0	17.0	35.3	7.0
<i>F</i>	2.909	2.483	0.690	3.651*	0.616
최종학력					
고졸이하	20.2	16.7	13.8	38.7	7.5
전문대졸	14.7	15.0	14.0	48.8	5.5
4년제졸	14.6	12.4	15.0	50.2	4.8
대학원이상	13.5	11.1	15.3	54.7	3.3
<i>F</i>	5.446***	5.143**	0.284	6.881***	4.763**
2022년	26.8	12.7	18.3	30.7	10.0

주: 2022년 수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만족도 조사 결과임.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41.

* $p < .05$. ** $p < .01$, *** $p < .001$.

나.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 첫만남이용권의 사용범위가 넓다보니, 해당 자녀뿐 아니라 부모, 가족을 위해 사용가능함. 이에 첫만남이용권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지 알아봄.

- 가장 많이 사용한 산후조리원은 해당 자녀와 가족(본인포함) 모두를 위한 것으로 응답함.
- 육아용품, 식음료비, 의료비, 산후조리원, 교육비는 해당 자녀를 위해 사용했다는 응답률이 가족(본인 포함)보다 더 많았음.
 - 교육비는 응답 사례수가 37명에 불과함. 해당 자녀는 신생아이므로 교육비로의 사용이 적을 수밖에 없음.

- 생활용품(육아용품 제외), 문화생활비, 서비스비용, 교통비 등은 가족(본인 포함)을 위해 사용했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음.

[표 3]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

항목	사용대상		사례수
	해당 자녀	가족 (본인 포함)	
육아용품(옷, 기저귀, 장난감 등)	93.6	15.0	(838)
식음료비(분유, 이유식, 식비 등)	76.6	46.4	(761)
의료비(병원, 약국 등)	76.3	48.4	(744)
산후조리원	68.7	62.5	(1,132)
교육비(교재·교구 구입, 온라인 교육, 학원 수강 등)	64.9	54.1	(37)
생활용품(육아용품 제외)	54.6	78.1	(392)
문화생활비(영화, 연극, 여행 등)	40.9	77.3	(22)
서비스비용(개인관리 목적의 스포츠센터, 헤어샵, 마사지 등)	10.3	92.6	(68)
교통비(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29.4	94.1	(85)
기타	61.5	65.4	(26)

다.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이용의 편리성 등

- 신청방법, 이용가능 업체/물품, 이용 기간, 전반적 만족도로 세분화하여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신청 방법이 평균 4.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 기간(4.40점), 이용 가능 업체/물품(4.36점) 순으로 나타남.
- 자녀수 2명 및 3명 가구가 자녀수 1명보다 만족도가 높았음. 이는 이전 출산 때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첫만남이용권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풀이됨.

가계부담 해소에 도움이 됐죠. 첫째, 둘째랑 비교했을 때는 200만원이 들어오네.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일단은 진짜 좋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기저귀 값에서 200만원이 되는 거니까 좋죠……
- 대체로 고소득가구, 맞벌이가구, 고학력가구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음.
 - 2022년 조사에서도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 가정의 만족도가 4.83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200~300만원 가정이 4.74점으로 가장 낮았음(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2: 22).

[표 4] 첫만남이용권 신청/이용 편리성 및 전반적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신청방법	이용 가능 업체/물품	이용기간	전반적 만족도	사례수
전체	4.49	4.36	4.40	4.47	(2,000)
자녀수					
1명	4.43	4.27	4.29	4.38	(541)
2명	4.55	4.41	4.47	4.54	(1,106)
3명 이상	4.37	4.32	4.35	4.42	(353)
<i>F</i>	8.020***	4.391*	6.628**	6.63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42	4.27	4.28	4.40	(524)
300만원~400만원미만	4.49	4.32	4.39	4.45	(514)
400만원~500만원미만	4.55	4.44	4.47	4.53	(380)
500만원~700만원미만	4.48	4.41	4.45	4.51	(453)
800만원 이상	4.56	4.45	4.51	4.53	(129)
<i>F</i>	1.688	2.87*	3.081*	1.814	
맞벌이 여부					
외벌이	4.45	4.31	4.34	4.41	(1,039)
맞벌이	4.55	4.43	4.48	4.56	(896)
무직	4.26	4.15	4.18	4.32	(65)
<i>F</i>	6.419**	6.246**	7.024***	8.10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47	4.25	4.26	4.37	(342)
전문대 졸	4.43	4.30	4.32	4.40	(525)
4년제 졸	4.51	4.40	4.45	4.52	(917)
대학원 이상	4.55	4.47	4.58	4.62	(216)
<i>F</i>	1.526	3.913**	6.928***	5.972***	
2022년		4.72		4.79	(2,000)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45.

* $p < .05$. ** $p < .01$. *** $p < .001$.

- 전반적 만족도는 2023년 4.47점으로 2022년 4.79점 대비 다소 떨어짐. 그러나 2023년 면담조사에서는 참여자 중 대부분(11명 중 8명)이 5점 만점의 평가를 함(표 5 참조).
 - 3점의 낮은 만족도를 준 사례 5도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사업은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첫만남이용권은 사용처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다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기도 편해서 다른 유사 사업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이윤진 외, 2023: 51).

임신출산의료비지원은 무조건 약국 아니면 병원 이런 요양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첫만남은 다 되는 거니까……사용하기도 편하고(사례 5)

- 4점의 만족도를 준 사례 6도 첫만남이용권은 “기분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함.

부모급여가 월 70만원이라 만족도가 센 것 같아요. 현금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부모급여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게 되면은 어린이집 비용으로 나가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어요. 금액적으로는 아동수당이지만 기분 좋은 거는 첫만남(이용권)이에요(사례 6).

[표 5] 면담조사 참여자들의 이용만족도 및 이유

사례	5점 척도	이유
1	5점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바우처라 매우 좋음
2	5점	임신 초기에 돈 들 곳이 많은데 알차게 육아용품 및 조리원에서 알뜰하게 잘 썼고 금액이 적지 않아 만족함
3	5점	가족 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비 증가 및 각종 육아용품 구매 비용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났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서 매우 만족함
4	5점	편의성 즉시 사용 및 잔액 알림 등
5	3점	금액이 너무 적고 첫만남이용권으로 인해 지자체 지원금이 없어지거나 낮아졌기 때문임.
6	4점	카드 결제시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되어 잔액 상관없이 쓸 수 있어서 좋았음. 임신부 교통비 바우처가 남아있는 경우 첫만남이용권이 먼저 결제되어 기간이 더 짧은 임신부 교통비를 쓰기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빠른 기간 내에 소비하게 됨
7	5점	사용처가 다양해서 좋음
8	5점	와이프 산후조리원 비용이 부담이었는데 첫만남이용권으로 큰 돈 안들어가고 산후조리해서 편했음
9	5점	다른 바우처(지역 제한, 오프라인 등)에 비해 높은 사용처 신청의 편의성(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 적당한 금액(육아에 필요한 생필품 구매에 적당)
10	5점	육아용품을 준비하기 전까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는 몰랐었음, 살고 있는 동네 특성상 길이 좋지 않아 아기를 데리고 외출하려면 서스펜션이 좋은 유아차가 필요했는데 기본 100만 원부터 시작이라 나라에서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아기와 산책할 수 있는 유아차를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금액임.
11	4점	출산으로 인한 퇴직으로 수입이 줄어서 가계운영이 어려운데 도움이 됨.

자료: 이윤진·김지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46.

▶ **첫만남이용권의 불만족 이유**

- 앞서 문항에서 불만족 답변을 한 사례(284명) 대상으로 이유를 알아본 결과, 바우처 금액이 부족해서(77.1%)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 다음으로 바우처의 사용처 제한(32.7%), 자녀 출산 후에야 발급 받을 수 있어서(27.8%), 신청 후 바로 지급되지 않아서(25.7%),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해서(1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첫만남이용권 신청 후, 바우처 금액 입금 시기가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들어온 것으로 면담조사에서는 확인됨.
- 면담조사에서 첫만남이용권 자체의 불만족보다는 이 지원이 생기면서 기존의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없어져서 불만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첫째 때는 출산장려금을 받았는데 첫만남이 생기면서 없어졌어요. 지자체에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 ‘바우처 금액이 부족해서’를 응답한 가구를 살펴보면, 20대(87.5%), 자녀수 1명(80.2%), 월소득 300~400만원 미만(82.7%), 무직(93.3%), 전문대졸(79.4%) 가구임.
 - 자녀수가 적고, 가구소득이 낮고(무직 포함), 전문대졸 이하 학력의 가구에서 금액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냄.

[표 6] 첫만남이용권 불만족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바우처 금액이 부족	바우처 사용처 제한	자녀 출산 후 발급 받을 수 있어서	신청 후 바로 지급되지 않아서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해서	신청 방법이 어려워서 (온라인 신청 등)	기타	사례수
전체	77.1	32.7	27.8	25.7	16.9	1.8	1.5	(284)
연령								
20대	87.5	25.0	29.2	37.5	25.0	4.2	0.0	(24)
30대	75.3	30.7	28.8	25.6	17.2	1.9	1.4	(215)
40대	80.0	46.7	22.2	20.0	11.1	0.0	2.2	(45)
자녀수								
1명	80.2	24.2	26.4	30.8	16.5	3.3	1.1	(91)
2명	75.4	34.3	32.1	23.9	19.4	0.7	2.2	(134)
3명 이상	76.3	42.4	20.3	22.0	11.9	1.7	0.0	(59)

구분	바우처 금액이 부족	바우처 사용처 제한	자녀 출산 후 발급 받을 수 있어서	신청 후 바로 지급되지 않아서	자녀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해서	신청 방법이 어려워서 (온라인 신청 등)	기타	사례수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3.6	39.6	27.5	28.6	17.6	3.3	1.1	(91)
300만원~400만원미만	82.7	25.9	29.6	28.4	18.5	0.0	1.2	(81)
400만원~500만원미만	82.2	35.6	22.2	15.6	8.9	2.2	0.0	(45)
500만원~700만원미만	73.1	30.8	32.7	23.1	19.2	0.0	0.0	(52)
800만원 이상	66.7	26.7	20.0	33.3	20.0	6.7	13.7	(15)
맞벌이 여부								
외벌이	77.9	34.9	29.7	24.4	16.3	1.7	1.7	(172)
맞벌이	73.2	29.9	20.6	24.7	16.5	2.1	1.0	(97)
무직	93.3	26.7	53.3	46.7	26.7	0.0	0.0	(15)
최종학력								
고졸이하	76.6	31.3	37.5	28.1	18.8	4.7	0.0	(64)
전문대졸	79.4	34.0	27.8	20.6	19.6	0.0	1.0	(97)
4년제졸	75.0	34.6	24.0	28.8	15.4	1.9	2.9	(104)
대학원이상	78.9	21.1	15.8	26.3	5.3	0.0	0.0	(19)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p.47-48.

라. 첫만남이용권이 자녀계획 영향 정도

▶ 첫만남이용권과 추가출산

- 추가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489명)에게 첫만남이용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물은 결과, 65.2%가 “그렇다(약간 22.9%+매우 42.3%)”고 긍정적으로 응답함.

- 그러나 2022년의 4.25점 대비 긍정적인 영향력이 떨어짐.

첫만남이 도움은 되지만 이 정책으로 더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습니다.

첫만남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그런 정책이 출산 계획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집을 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는 출산 안 할 것 같아요.

- 향후 자녀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가구를 변인별로 보면, 20대, 자녀수 2명, 저소득가구, 외벌이가구임.

- 20대, 자녀수 1명, 저소득가구, 외벌이가구 등이 첫만남이용권의 금액이 적어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집단임(표 6 참조). 그런데 이들 가구 중심으로 추가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온 점은 모순된 결과이나,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증액하면, 이들 가구 중심으로 추가출산을 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추정됨.

[표 7] 첫만남이용권의 자녀계획 영향력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사례수
전체	5.7	11.7	17.4	22.9	42.3	3.84	100.0(489)
연령							
20대	6.8	4.1	12.2	33.8	43.2	4.03	100.0(74)
30대	5.4	13.9	17.4	22.0	41.3	3.80	100.0(373)
40대	7.1	4.8	26.2	11.9	50.0	3.93	100.0(42)
$\chi^2(df)/F$	17.333(8) [*]					1.136	
자녀수							
1명	5.1	13.3	16.8	25.3	39.6	3.81	100.0(316)
2명	7.1	9.0	16.8	19.4	47.7	3.92	100.0(155)
3명 이상	5.6	5.6	33.3	11.1	44.4	3.83	100.0(18)
$\chi^2(df)/F$	10.116(8)					0.37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9	7.2	15.9	23.2	50.7	4.12	100.0(138)
300만원~400만원 미만	5.1	12.8	14.5	23.9	43.6	3.88	100.0(117)
400만원~500만원 미만	11.5	9.2	21.8	19.5	37.9	3.63	100.0(87)
500만원~700만원 미만	5.5	14.5	16.4	24.5	39.1	3.77	100.0(110)
800만원 이상	5.4	21.6	24.3	21.6	27.0	3.43	100.0(37)
$\chi^2(df)/F$	22.407(16)					3.453 ^{**}	
맞벌이 여부							
외벌이	6.3	9.2	16.8	21.8	45.8	3.92	100.0(238)
맞벌이	5.6	14.2	16.7	24.0	39.5	3.78	100.0(233)
무직	0.0	11.1	33.3	22.2	33.3	3.78	100.0(18)
$\chi^2(df)/F$	8.078(8)					0.758	
최종학력							
고졸이하	4.3	10.8	12.9	25.8	46.2	3.99	100.0(93)
전문대졸	6.9	13.9	13.9	16.8	48.5	3.86	100.0(101)
4년제졸	6.5	11.7	21.2	20.8	39.8	3.76	100.0(231)
대학원이상	3.1	9.4	15.6	35.9	35.9	3.92	100.0(64)
$\chi^2(df)/F$	15.586(12)					0.878	
2022년	3.2	5.6	12.3	21.1	57.8	4.25	100.0(781)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p.56-57.

▶ 첫만남이용권 금액 확대와 추가 출산 의향

- 만약,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확대한다면 추가 출산 의향을 묻은 결과, 20대, 자녀 1명, 저소득가구, 무직, 고졸이하 가구(앞서 현재 바우처 금액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가구들)에서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전체적으로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확대할 경우, 추가 출산할 계획 여부에 대해 “그렇다”(약간+매우)는 긍정적 응답이 46.4%, “그렇지 않다”(전혀+별로) 37.7%로 약 10%가까이 많이 나왔고, 점수로 환산하면 3.09점임(5점 만점).
 - 그러나 2022년의 3.40점 대비 긍정적 응답은 낮게 나옴. 2023년 설문조사에서 금액을 확대해도 추가 출산을 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전체 응답이 22.6%로, 2022년 16.2%에 비해 추가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높아짐.

만약 첫만남을 두배로 준다고 해도(400만원) 더 낳을 생각은 없어요. 출산을 장려하려면 일회성보다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표 8] 첫만남이용권 금액 확대 시, 추가 출산 의향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사례수
전체	22.6	15.1	16.0	23.3	23.1	3.09	100.0(2,000)
연령							
20대	12.2	7.0	19.2	23.8	37.8	3.68	100.0(172)
30대	22.5	15.8	15.0	23.7	23.1	3.09	100.0(1522)
40대	29.1	16.3	18.6	20.9	15.0	2.76	100.0(306)
$\chi^2(df)/F$	51.027(8)***					21.363***	
자녀수							
1명	6.1	9.2	14.2	32.3	38.1	3.87	100.0(541)
2명	26.2	18.6	17.7	19.9	17.5	2.84	100.0(1,106)
3명 이상	36.5	13.0	13.0	19.8	17.6	2.69	100.0(353)
$\chi^2(df)/F$	227.837(8)***					115.32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9.1	13.4	14.9	23.3	29.4	3.31	100.0(524)
300만원~400만원 미만	24.1	13.8	15.0	23.0	24.1	3.09	100.0(514)
400만원~500만원 미만	24.7	15.8	17.4	22.1	20.0	2.97	100.0(380)
500만원~700만원 미만	23.0	16.6	17.4	24.3	18.8	2.99	100.0(453)
800만원 이상	23.3	20.2	14.7	24.0	17.8	2.93	100.0(129)
$\chi^2(df)/F$	27.173(16)*					4.274**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사례수
맞벌이 여부							
외벌이	23.7	15.3	14.5	22.1	24.4	3.08	100.0(1039)
맞벌이	21.8	15.4	17.3	24.8	20.8	3.07	100.0(896)
무직	16.9	7.7	20.0	20.0	35.4	3.49	100.0(65)
$\chi^2(df)/F$	16.003(8)*					2.459	
최종학력							
고졸이하	22.2	9.9	15.5	20.8	31.6	3.30	100.0(342)
전문대졸	26.1	14.7	17.3	21.0	21.0	2.96	100.0(525)
4년제졸	21.3	17.4	16.0	23.9	21.4	3.07	100.0(917)
대학원 이상	20.4	14.4	13.0	30.1	22.2	3.19	100.0(216)
$\chi^2(df)/F$	35.023(12)***					3.972**	
2022년	16.2	12.1	16.6	25.6	29.6	3.40	100.0(2000)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60.

* $p < .05$. ** $p < .01$. *** $p < .001$.

2022년 대비 불만족 응답이 높아진 주된 이유

- 첫만남이용권 금액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아진 주된 이유는 짧은 기간 동안 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2023년 6월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하였고,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석유류 및 농산물 가격 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반등함(이윤진 외, 2023: 59).
- 육아용품은 엄청 비싸요. 분유가 한달 사이에 5천원이 올랐어요.
- 물가 상승률 반영했을 때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비조차 안돼요. 반값도 안돼요.

4 2022년 만족도 조사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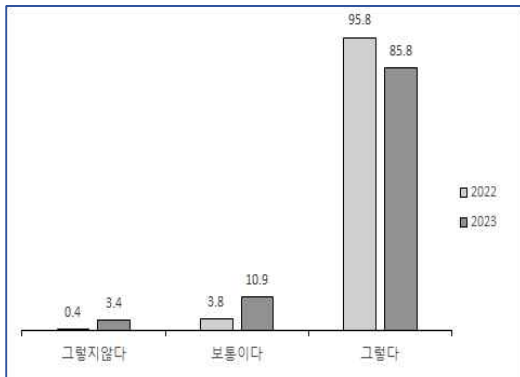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및 가계 경제적 부담 완화

-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022년 4.79점, 2023년 4.47점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 응답이 3배 정도 증가함.

- 첫만남이용권의 목적이 출생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는데 “그렇다”는 응답이 약 72%로 높게 나왔으나, 2022년에 비해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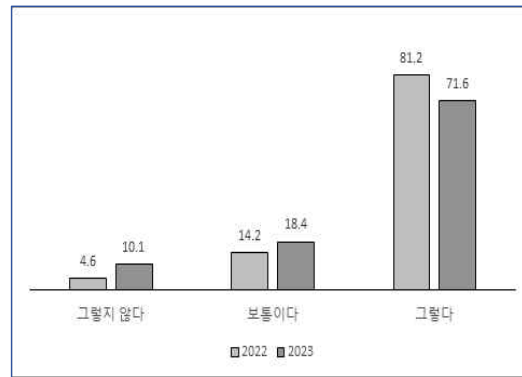
[그림 3] 2022년·2023년 만족도 비교

단위: %



[그림 4] 2022년·2023년 가계경제 도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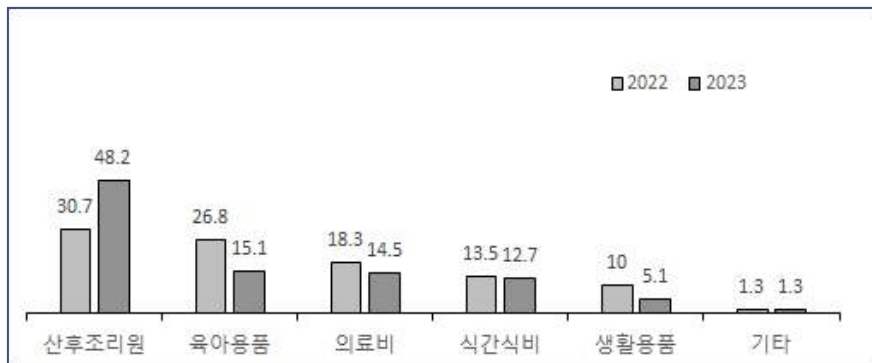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68.

▶ 첫만남이용권 주 사용처

- 주 사용처는 2022년, 2023년 모두 ‘산후조리원’으로 나타남. 2022년 대비 2023년의 산후조리원 사용률이 약 18%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함.

[그림 5] 2022년·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비교

단위: %



자료: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68.

5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 첫만남이용권 현행 이용방식 유지

- 지금처럼 일시 지급, 사용기간 제한(발급 후 1년 이내 소진), 육아와 무관한 부적절한 사용처 제한 등의 현행 방식에 대해 부모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므로 지급의 기초를 유지함.

▶ 보편적 지원 유지하되 지원 금액 상향 및 저소득가구 추가 지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바우처 300만원으로 상향됨. 금액 증액이 추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이 끼칠 것으로 기대하나,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시적인 성과(합계출산율 제고 등)는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움.
 - 합계출산율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 2024년 1분기 0.6명대(세계일보, 2024.2.28.)
- 본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에서도 첫만남이용권의 금액에 대해 주로 자녀수 1명, 외벌이가구, 저소득가구에서 부정적 응답이 더 많았음. 이에 첫째 자녀부터 현행 200만원에서 상향하고, 저소득가구에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는 등 정책의 고도화를 제안함.

▶ 출생신고 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일부 병원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이 같은 시스템을 제도화해서 향후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자동으로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면 지급까지 며칠이 소요되는데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후조리원에서 비용 지급 시,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되지 않아서 개인카드(또는 현금)로 먼저 결제하고, 발급받으면 다시 취소하고 재결제하는 불편함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해서 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신청방법 확대: 관련 앱 개발 및 보급

- 앞서 제안한 “바로 지급 방식”과 연결되는 방안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므로 출생신고와 연계된 앱(APP)을 개발, 보급할 것을 제안함.
- 앱을 통해 신청하고, 잔액을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등 편리성을 제고함.

▶ 첫만남이용권의 기대효과

- 출산가정의 생애초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일조
- 첫만남이용권은 2018년부터 출생가정에 지원했던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정책임. 즉, 기존 정책을 발전시킨 정책으로, 현재 첫만남이용권도 유관 정책들 예컨대, 영아기에 지급하는 부모급여 정책과 결합하여 보다 진화된 방식(예: 바우처에서 현금 지급으로 변경 등)의 생애초기 육아지원정책을 모색 가능

참고 문헌

- 보건복지부(2024). 2024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세계일보(2024.2.28.). '국가소멸' 다가온다...2024년 출산율 0.6명대 눈앞.
 - 이소영·최인선(2021).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진·김자연·조혜주(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3-0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2).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미간행.
-

이윤진 선임연구위원 leeyunjin@kicce.re.kr

2024 KICCE ISSUE PAPER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분석과 정책제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4535 서울 중구 소공로 70 9층
www.kicce.re.kr